

Michael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1985年刊

李正澤*

Michael Burawoy의 「The Politics of Production」은 生産을 둘러싼 諸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국면으로만 파악하려는 종래의 급진주의적 시각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한 역작이다.

그는 생산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장치 (Political and Ideological Apparatuses)가 맑스가 말하는 상부 (정치·이데올로기)와 하부 (경제)의 二分法的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 형태가 공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리체계 (축적체계·규제양식)와 국가의 지배체계와의 제도적 관계를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따라 표출되는 생산에 내재된 경제적 장치와는 별개의 규제장치임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고전 및 오늘날의 맑스주의가 생산을 오로지 경제주의적 접근법에 의해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종래의 경제주의적 입장은 지나치게 경제법칙만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잉여의 확보·은폐는 시장원리나 맑스의 잉여가치설만으로 설명되어 질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Michael Burawoy에 의하면 잉여의 확보·은폐는 임금, 근로조건, 기본권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이익투쟁과 권리투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 혹은 공장 단독의 결정물이 아니라 국가-工場間關係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다.

그關係의 位相은 생산양식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서 그는 초기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후기식민주의 別 位相을 비교분석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Michael Burawoy 자신이 위의 各各의 형태에 속하는 공장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일하면서 참여관찰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그位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책은 序文과 5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序文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역사변혁 주체로서의 역할의 實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靜的인 노동자가 아니라 動的인 노동자의 力動性이 분석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에 關한 이론적 맥락이 다루어졌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제 1 장에서 Michael Burawoy 의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노동지배 현상이 기존의 노동과정론자들에 의해서 잘못 분석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맑스와 브레이버만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노동의 경제적 영역만을 지나치게 강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을 간과하므로써 잉여가치의 확보·은폐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동과정 형태의 역동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브레이버만은 테일러리즘을 단순히 경영관리기법으로만 보는 데 실제로 잉여가치확보·은폐를 위한 정당성 창출 기제로 활용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2 장에서는 맑스의 市場專制主義 (Market Despotism) 를 비판하고 있다. 맑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착취에 속수무책인 이유는 첫째, 회사間 경쟁, 둘째, 계획과 실행의 분리에 의한 노동자들의 자본가에의 예속, 셋째, 자신들의 노동력 판매를 위한 자본가에의 종속, 넷째, 이런 예속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원칙에 의해서 시장전제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Michael Burawoy 는 맑스가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장전제주의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맑스 자신이 분석했던 19C 영국 방직산업을 봐도 시장전제주의 형태의 노동통제체계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잉여가치의 확보·은폐를 위한 조건들이 다양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에 종래는 맑스의 예언과는 달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혁명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영국에서는 자본가계급이 개량주의자가 되고 덜 발달된 러시아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맑스의 이론은 설명치 못하는 것이다. 제 3 장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산업현장(공장)에서의 노동통제가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實際 영국 Manchester 의 한 전기회사와 Chicago 의 저자가 1974-5년 사이에 직접 노동자로 일했던 기계회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개입 형태의 차이 (영국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에는 국가의 지원이 적극적이었으나 공장단위의 노사관계에는 직접 개입이 적었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前者는 소극적이고 後者は 적극적이었음)가 어떻게 작용하여 영국의 Jay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미국의 Allied라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교섭 관행이 정착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자본주의와의 비교분석 시각에서 다루었다. 저자 자신이 1983년 가을 헝가리의 한삼페인 공장과 섬유 공장에서의 경험과 1984년 여름 한 기계공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례분석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적 전제주의 (Bureaucratic Despotism) 일반적 특성과 소련, 헝가리, 및여타 등

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Michael Burawoy 의 분석에 의하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개별 자본가에 의한 잉여 포탈이나 시장원리에 의한 수요공급 현상에 따른 교섭력 작용대신 黨이 이끄는 중앙집행기구를 상대로 하는 교섭력은 중심부 산업부문과 주변부 산업부문에 그 양상이 크게 대별된다. 중심부문은 석탄, 철강, 기계 산업으로 노동자들 또한 대부분이 당원이거나 노조의 지도층으로서 단체교섭 양상은 관료적 양태로서 黨과의 교섭력을 높이는데 생산 확대를 위한 자원확보가 중요한 변수인 반면 소비재같은 주변부문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숙련공들로서 이 부문에서의 경영 관리는 대부분 중심부문에 의존하고 단체교섭 양태 또한 강압적이다.

Michael Burawoy 는 헝가리에서는 이러한 이중구조 현상이 회사내에서 폴란드에서는 회사별로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구조적 특성의 차이가 두나라에서의 계급투쟁양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제 3 세계에서의 노동과정과 노동정치를 다루고 있다. 저자 자신이 1968-71년 잠비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생산양식이 판이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식민지 자본이 토착자본과의 연계를 통해서 형성된 생산관계가 노사관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 3 세계에서의 비교분석을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노·자갈등을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적 분리시각에서 보아왔던 종래 Marxist 입장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더우기 저자 자신이 실험적 경험을 통하여 비교사례분석을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노동과정에 대한 Marxist 문헌의 질을 고양시켰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과제로서 두가지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공장에서의 노동정치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자 자신의 역동적 비교 분석의 중요성 역설에도 불구하고 종래는 靜的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평가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저자는 비교분석에서 기초적 원리인 변수들의 체계적 통제에 의한 각사례의 비교분석에 충실했다기 보다는 사례분석으로 결과 지워진 통제 유형의 역사적 변천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궁극적 목적이 19C 이래 역사발전과정에서 존재해 왔던 노자갈등의 유형화의 발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 유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는지를 모호하게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 권의 책에서 위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은 그 두가지 목적이 갖고 있는 성질의 차이때문에 저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의 입장이다. 前者의 경우를 System분석이라고 한다면 後者は Historical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두가지를 동시에 추

구하므로써 Michael Burawoy 의 분석의 틀에 위치지워진 노동자들은 그 자신이 천명한대로 역사에 살아있는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실험실에 박제된 노동자 표본이 되고 말았다.

둘째, 첫번째 이유때문에 Michael Burawoy 는 이 책에서 공장수준의 노동정치와 사회전반수준의 노동정치를 임의로 자유분방하게 왕래하므로써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이 갖는 본원적 가정의 규칙들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공장단위에서의 노자 갈등은 그 갈등대로 국가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노자 갈등과 계급갈등이 갖는 영향과는 그 내용과 位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우기 한 사회內에서 별개의 공장단위에서의 노자갈등의 和가 그 사회 전체의 노자 갈등이라고 봐서도 안된다.

Michael Burawoy 의 비교 사례분석은 그것대로 빛나는 가치를 지니지만 그 사례분석을 통해서 초기 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후기식민주의 등의 각기 다른 생산 양식 체제하에서의 계급갈등이나 노자갈등의 유형 또는 양상의 본질은 결코 볼 수가 없으며 그러한 본질의 규명은 거시적 분석에 의해서만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평범한 규칙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체험 할 수 있다.